시츄들이 똥 먹는 애들이 많아요

이 똥을 잘 못 끊습니다

담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

[(중독성 갑)] '요즘 안 좋아' 하면 똥 이렇게 먹고

[견종백과 : 시츄 편]

안녕하세요, 견종백과 강형욱입니다

[지동 : 시츄 3세] 오늘은 시츄 편이에요, 시츄

**시츄의 특징**

[시츄의 특징?] 시츄를 모르는 한국 분들이 있을까?

시츄는 우리나라 견종은 아니거든요?

사실 왕실에서 살던 개입니다

근데 너무 친근해

너무 친근해

2,000년 정도 전에

라사압소하고 페키니즈를 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견종이라고 하고요

시츄는 기본적으로 딱 이 색깔이 시그니처고요

흰색 바탕에 갈색 무늬가 있고

검정색이 살짝 있어요

그리고 이제 완전 검정색으로 뒤덮인 친구들도 있고

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둥이가 굉장히 짧습니다

빡 들어가 있어서 없어요 사실

주둥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

이게 언더숏(undershot)이라고 하거든요

부정교합이 좀 있는데

[(부정교합이 기본값.jpg)] 얘네들은 교합이라고 하기 좀 그럴 정도로 이게 스탠다드입니다

근데 이 친구들 눈썹을 보시면

[(양옆으로 길게 내려온 치명적 눈썹)] 화장 예쁘게 한 여성같이 눈이 이렇게 내려와서

이거 자르면 미용사님하고 진짜 결투한다

[시츄의 털? (알레르기)] 견종 중에서도 알레르기를 덜 일으키는 견종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요

**시츄의 털(알레르기)**

그 견종 중의 하나가 시츄예요

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

강아지 털이 우리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

비듬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

이 친구들이 그게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

**시츄의 성격**

[시츄의 성격?]

시츄들이 마음 표현을 잘 안 합니다

별명이 있는데 할머니 개라고 그래요, 할머니 개

이게 왜 할머니 개냐면 조용하고 착하고

뭐 아픈 것도 잘 표현도 안 하고

나이가 조금 있는 애들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만 들고

꼬리만 살짝 몇 번 치고

[(어 왔니?)] 이렇게 하고 말아요

그래서 1년에 우리 센터에 많은 견종들의 문의가 오잖아요?

그중에서 제일 문의가 안 오는 견종이 시츄예요

근데 좀 살펴줘야 해

왜냐하면 아픈 걸 굉장히 참아요

[(발 다쳤는데 티 안 내는 지동.jpg)] 어딘가 불편한데도 잘 표현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

심지어 예전에 제가

이거 예전에 말한 것 같은데

(시츄가) 자궁이 터졌는데

그거를 또 아프다고도 안 해

누워만 있어

저 그러다 죽은 개도 봤어요

그래서 얘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

아프다고를 안 합니다

[똥 먹는 시츄?] 이게 약간 시그니처인데

**똥 먹는 시츄?**

시츄들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똥을 먹습니다

얘도 똥 먹었었나요?

지동이는 안 먹었는데

제가 예전에 키웠던 시츄는 똥을 먹었었어요

그쵸?

이 똥을 잘 못 끊습니다

담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

[(스트레스 풀 때 똥 한 입)] '요즘 안 좋아' 하면 똥 이렇게 먹고

그런 것처럼 영원히 참아야 되는

[(시츄의 슬픈 똥이야기...)]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시츄

혹시 저 똥 먹는 시츄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

[시츄의 질병?] 또 얘네가 3가지 질병이 좀 있어요

**시츄의 질병**

[(1번 질병)] 딱 봐도 눈 크죠?

안구에 관련된 질환들이 조금 있어요

눈이 너무 커서 오염이 많다 보니까

실명을 빨리 하더라고요

이제 한 5-6세 됐는데 얘가 왜 이렇게 사나워졌지?

안 보여서 그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

[(2번 질병)] 또 하나는 이 호흡기 질환이 좀 있어서

[(거친 들숨 날숨)]

뭐 이런 소리들도 많이 내는 친구들도 있고

[(3번 질병)] 또 하나는 피부가 약합니다

피부가 약해서 긁는다거나 핥는다거나

이 친구들은 훈련사보다 수의사님을 자주 만나는 게

시츄들을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

그렇죠?

[시츄의 활동량?] 활동량은 다른 견종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요

**시츄의 활동량**

진짜 이 친구는요

동네 한 바퀴 정도면 됩니다

[(세상 느긋한 동네 산책.mp4)] 딱 우리 동네가 무슨 아파트 단지 한 바퀴야

거기만 돌면 돼요

벤치에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

**시츄 키우는 난이도**

키우는 난이도?

난이도라는 게 없습니다

난이도라는 게 없어요

[0점 / 10점] 키우는... 네가 무슨 난이도가 있냐?

여러분 시츄는 어딘가 불편한데도 표현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

그래서 좀 살뜰히 살펴주셔야 돼요

또 하나, 똥은 못 끊어요

받아들여 주세요

Q. 뽀뽀해도 되나요?

사랑한다면... 할 수 있죠

근데 나도 모르게

[(뽀뽀 피하기)]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

**시츄 예비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?**

[시츄 예비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?] 옛날에 버려지는 개로 시츄가 많았어요

혹시나 강아지 처음 키워 보시면서

'잘해줄 자신만 있는데'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

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 가보시면 시츄들이 좀 있습니다

뭐 말티즈나 푸들 이런 애들은

'나 좀 보세요' x2

'나 좀 데리고 가세요'라고 막 울어

근데 시츄들은 구석에서 이렇게 누워있어

그런 애들한테 한 번 기회를 주셔도 좋을 겁니다

또 우리 집에 아이가 있다

'우리 아이가 너무 말썽꾸러기인데'

'좀 예민하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'라고 할 때도

이 친구가 꽤 잘 맞을 겁니다

[시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?] 시츄는 너무 착한 바보입니다

**시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?**

너무 착한 바보여서

진짜 착한 사람들이 키웠으면 좋겠어